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학교 교수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작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계인이 2주일 만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사태에는 새누리당 내 권력 투쟁, 박근혜-유승민 두 정치인 간의 개인적 인연,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회 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이번 정권의 항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회 관계의 미래, 그리고 한국 대통령제의 성패에

기रो에 선 대통령과 의회 관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특권 중의 하나로써 모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회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주장인 대통령으로서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를 국회에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 방식과 사후 처리에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 대행정부 권한 강화라는 취지에 여야가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행정부(대통령) 권력에 비해 국회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권위주의하에서 행정부의 시너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국회가 민주화 이후 점차 국회의 대행정부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제도적 권한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커다란 징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감지하면서도 거부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국회법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 즉 박 대통령과 주변 참모, 그리고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소위 친박 정치인들이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박 대통령의 언술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존중해야겠지만, 강력한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임명부-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는 내각제가 아니라 두 부처가 분리 독립되어 있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의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의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의 제한성은 상식이다. 미국 대통령 연구의 대가인 뉴스타트(Richard Neustadt)는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설득하는 힘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설파한 바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제도(특히 의회)의 협력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받아야만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원한다면,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온화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보다 건전한 대통령-의회 관계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지는 향후 마무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보다 수평적인 대통령-의회 관계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社說

개통 100일 호남KTX 역세권 개발 서둘러야

내일(10일)이던 서울과 광주를 90분 대 생활권으로 바꿔 놓은 호남KTX가 개통된 지 딱 100일이 된다. 개통 이후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케 한 덕분에 열차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로 좌석 부족등 불편이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증편과 증차도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호남KTX는 8월부터 주중 44회서 48회로 4회 증편된다고 한다. 공급 좌석 확대를 위해 '호남KTX 산천'을 '호남KTX-1'로 교체해 주중 8회서 16회, 주말 12회서 16회로 늘릴 계획이다. 저속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단시간 93분 열차도 1회서 3회로 늘어나 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월 개통한 호남KTX는 그동안 수요 예측 실패로 열차가 부족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입석 승객도 큰 폭으로 늘면서 안전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였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일단 좌석 부족이

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들이 아직 많다. 우선 승정역 역사 내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버스-택시 등 환승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했던 광주 승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코레일 등 관계기관들이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민간 사업예정자가 코레일과 협상에 나섰다. 협상에 나섰다고 하니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호남KTX는 당초 우려했던 의료·유통업 '빨대 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데 의견이 없다. 이제 수도권 등에서 오는 호남KTX 이용객을 흡수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역세권을 개발해 승정역을 호남권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하루빨리 정비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나서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령에 어긋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 규제 조례의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1333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별로 평균 78건이나 되는 지방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 규제 유형도 다양했다.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70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됐음에도 조례에선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도 561건(42.0%)에 달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선 국제제단 처분을 중지할 때 1개

월간 공고하도록 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는 10월로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밖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도 198건(14.8%)이나 됐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작업과는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정비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1333건의 조례가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광주 서구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에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지방 규제 유형도 다양했다.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70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됐음에도 조례에선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도 561건(42.0%)에 달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선 국제제단 처분을 중지할 때 1개 월간 공고하도록 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는 10월로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밖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도 198건(14.8%)이나 됐다.

無等鼓

올림픽의 나라인 그리스가 이번 광주 U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국가가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경제 문제는 마구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 실마리를 찾기 어려우니이다.

현대인의 상상력과 발상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그리스신화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아드네의 실' 이야기가 있다. 이 신화는 실 꾸러미의 실마리를 잘 잡은 탓에 괴물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다. 그래서 지금도 '아리아드네의 실'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라

그리스의 실타래

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리스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크레타 섬의 미궁(迷宮)에 갇힌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의 제물을 바쳐서 1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녀는 테세우스가 괴물을 퇴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미궁에서 길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실 꾸러미를 주었다. 이 꾸러미의 실 끝을 잡고 미궁에 들어갔던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인 뒤, 다시 실을 잡고 무사히 미로를 빠져나온다.

실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내용의 신화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온다. 평강 채씨(平康 蔡氏) 축보에 나오는 시조 탄상 설화도 그 중의 하나다. 평강에 사는 대갓집 규수가 혼전에 임신을 했다. 부모가 이유를 물으니 밤마다 청년이 찾아온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실을 꿰 바늘을 청년의 옷에 꿰아 놓도록 한다. 다음날 실을 따라가니 집 앞 연못 속에 집채만 한 크기의 오색영롱한 거북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규수가 육통자를 낳자 임금은 거북이 모양과 비슷한 채(蔡)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국민투표에서 국제 채권단의 채무 협상안에 대해 수용 거부 결정을 하면서 자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스는 한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의 위기에 우리 국민의 관심이 남다르다. 테세우스는 실 한 가닥에 의지해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왔다. 소크라테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그리스 국민도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하루빨리 찾기 바

라. /사회팀장=채희중기자 chae@

의료칼럼

합병증·후유증 줄이는 복강경 수술



김한수 세계로병원 외과 원장

최근 10년 동안 외과에서 큰 변화를 뿜어내면 최소 침습 수술과 근거중심의학의 발달일 것이다.

최소 침습수술은 말 그대로, 최대한 정상조직에 손상을 적게 주면서 수술을 진행해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술이다. 요즘에는 수술 후 통증이나 흉터에 관심이 많아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게 남는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다. 최소 침습 수술은 형태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강경 수술이다. 내시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복강 내를 수술하는 경우를 복강경이라고 칭하고 있다. 복강경(또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수명연장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술 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유라고 생각된다.

고전적인 수술방법들은 대부분 큰 상처를 이용해 수술을 하는데 반해 복강경 수술은 적은 상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필자가 전공의 1년차 시절에는 수술 절개창을 작게 하면 소심하다고 해 크게 열고, 수술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면 대부분의 수술을 내시경이나 복강경으로 하고 있으니 '외과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실감이 간다.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수술 후 흉터가 작아서 젊은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복강내 수술 후에 발생하는 장유착증이 개복수술에 비해 적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복부 불편감이나 장폐색증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개복 수술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정교하고 효과적 수술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복강경의 경우는 확대된 영상을 보며 작고 길다란 복강경 기구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수술종류에 따라서는 개복수

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투관침 등 수술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비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복강 내 가스를 주입하는 것은 복강 위에 존재하는 심장이나 폐를 압박하여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수술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나 기저질환, 수술부위 및 범위에 따라 복강경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자의 입장에서는 복강경 기구와 비디오 카메라의 진입 각도가 제한돼 있고, 기구의 관절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들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복강경 수술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수술방법이나 과정은 수술부위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복강내 또는 다른 수술할 부위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어갈 투관침, 수술기구가 들어갈 투관침을 여러 개 삽입하고, 수술 부위에 물이나 가스를 넣어 공간을 확보한다. 설치한 투관침을 통해 비디오 카메라를 넣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막대처럼 긴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 수술을 진행한다.

내시경 또는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수

술은 총수술기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고도비만 수술 등 양성질환의 수술에서부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성질환의 경우 치료 후에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도 주변 동반장기 절제가 필요한 진행성 병변이 아닌 이상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결과도 개복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암 같은 질병의 경우 수술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망설임없이 개복수술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복강경 수술은 외과에서 혁명이라 불리며 각광받는 분야이며, 최근 수술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점만 많지 않다면, 필자도 가능하다면 환자들에게 복강경 수술을 권하고 싶어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환자를 치료하기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 수술범위나 위험도 등을 따져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 고

농업의 위기, 6차산업으로 극복하자



강을원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우리 농업현실은 녹록치 않다. 곡물자급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와 농가소득 정체 등은 우리 농촌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수입농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 환경은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리고, FTA 등 외부 여건과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내외의 환경변화로 많은 사람이 국내 농업의 미래에 대하여 어두운 전망표를 내놓고 있다.

급을 이룬 백색혁명을 이루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전업농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농업의 저력을 안다면 너무 회의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을 구태의연한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으로 바라 보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만한 6차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6차산업이란, 농산물 생산은 물론 생산물을 가공·유통하고 농장에서 체험프로그램 등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산업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콩을 생산해서 그냥 파는 것보다 두부나 간장, 된장으로 가공해 팔면 무려 5~8배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콩을 생산(1차)하고 두부나 된장으로 가공(2차)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마케팅 및 서비스(3차)를 융·복합(1×2×3=6)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을 바로 6차산업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문경시는 지역특산물 오미자를 생산·가공·판매 그리고 관광 체험까지 연계하여 1천여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임실 치즈마을

은 낙농업 중심에서 치즈가공·외식·관광 상품 등을 연계하여 연평균 7만 2천만명 방문객과 매출액 17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또 경기도 파주 산마루농원은 포도의 조상적인 산마루를 이용해 와인을 제조한다. 이 농원은 담초 머루농원을 운영하다가 잼과 가공식품을 제조했지만, 1990년대 후반 불기 시작한 외인 열풍에 합류하면서 제조와 가공, 그리고 머루 따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산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우리 신안군은 타지역에 비해 6차산업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 2018년 새천년대교 완공에 따른 미래 관광수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잘 발굴하고 활용한다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 또한, 농·수산업을 결합 수 있는 자연 조건과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으로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자와 블루오션을 찾는 젊은이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들의 직장과 도시생활에서의 경영노하우를 농업에 접목시켜 6차산업화

에 조화를 이루는 것도 기대해 본다.

농업·농촌이 생산중심의 딱지리 산업 한계에서 탈피해, 지역이 가진 자원, 농축산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 가공, 체험관광과 연계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가고 싶은 섬 신안관광에 대한 관심과 주말 가족단위 체험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농촌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체계적인 농촌체험지도와 농촌관광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위한 전문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이 '신안'하면 생각나는 신안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향토 음식 상품화 연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군은 녹두, 기장, 콩, 팥, 수수 등 전국 최대 잠곡 주산지이다. 특히 녹두는 전국 재배면적 1511ha 중 신안이 311ha으로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2015년부터 잠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단지육성을 시작으로 가공산업, 체험관광 등 성공적인 6차 산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안잠곡이 신안천일염과 같이 신안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여 신안이 6차산업의 중심에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